
2021년 제26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6. 25. ~ 7. 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방송일자	2021. 6. 25	시청률	0.051

【총 평】

“한국의 소리를 만든다 - 충북 영동군”편은 우리나라 3대 악성인 난계 박연 선생을 기리는 난계 악기 제작촌에서, 무형문화재 악기장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악기인 현악기 해금을 만드는 과정을 밀착 구성해 영상과 사운드에 담아낸 기획이 돋보였다.

3대 악성 박연의 얼을 이어 전통음악과 전통악기의 부활을 꿈꾸는 영동의 오늘을 잘 담아낸 것은 물론 우리나라 전통악기의 명맥을 이어가는 장인 정신을 고양하고 한국의 소리를 내는 국악기의 뛰어남을 집중 조명했다.

국악의 고장 충북 영동의 월류봉, 옥계폭포 등 명소를 통해 주목도를 높이고 무형문화재 19호 악기장이 직접 해금을 만드는 전 과정을 밀도 있게 보여주었다. 대나무 뿌리로 원통형 만들기, 구멍 뚫어주기, 옷칠하기, 명주 생사 합사, 마무리 작업 등 전 과정을 담아 악기장인의 땀과 정성, 열정을 제대로 표현했다.

【구성 및 내용】

충북 영동에서 전통악기를 만들어온 악기장의 해금 제작과정을 전해주었다. 충북 영동과 국악의 관계, 해금 제작의 시작인 대나무 선택부터 손질, 옷칠, 울림통 등 세부적인 제작과정을 담았다. 해금 제작과정에서의 여러 소리들이 전해졌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해금이 완성되는 과정이 세세하게 그려졌다.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분인 난계 박연 선생의 생가가 위치한 충북 영동에는 학교마다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일반인들도 국악을 많이 접하는 편이다. 영동이 ‘난계 박연의 얼을 이어가는’ 고장임과, ‘우리 악기를 제작하는 난계 악기 제작촌과 국악 연구원이 있으며, 일반인들이나 학교에서도 국악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북 무형문화재 제19호 악기장인 동재 조준석씨는 1977년부터 지금까지 전통악기를 만들어왔다. 해금의 경우에는 대나무로 만드는데 대나무 뿌리의 모양에서부터 해금의 소리가 결정된다. 잔뿌리를 제거하고 끝과 망치로 겹겹질을 깎아낸다. 그늘에서 건조시킨 후 음색과 음향을 좌우할 속을 파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울림통은 소리가 잘 나기 위해 옷칠도 정성스레 칠한다. 이후 명주 생사로 합사를 만들어 소나무 방망이에 감아 찌준다. 이를 통해 소나무의 송진이 실에 코팅된다. 쯤대에 줄을 감고 울림통과 연결해준다. 조준석 악기장은 일절 화학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우리나라 전통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며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픈 마음이 가득하다.

국악기가 소재였기에 그 자체로 ‘소리의 특징’이 강했고, 국악기를 통한 연주는 물론 국악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양각색의 다양한 소리가 등장했다. 소재 자체도 ‘소리’가 주인공이었고,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소리’가 내내 강조되는 특징이 있어, ‘소리의 존재감이 유독 부각되어, 사운드멘터리의 정체성을 잘 살렸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6. 26.	시청률	0.076

【총 평】

“딸보다 예쁜 며느리 행복한 농부 금자씨”편은 전북 정읍에서 귀농 15년차 생활 중인 주인공의 귀농 이야기를 담았다. 귀농 15년차인 주인공은 시어머님과 직접 채소를 심어서 가공식품까지 만들어내는 어엿한 식품회사 사장님이다. 초보농부에서 홈쇼핑 완판 여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5억 빚에서 40억 연매출 농부가 되기까지의 어려움, 투자 과정, 상품 개발, 밭농사 철학까지 고부가 함께하는 농촌의 희망 심기와 사랑을 방송했다. 특히 주인공이 직접 운영하는 식품회사의 성공과 자랑 위주의 홍보보다는 농촌의 희망이 부각된 현장 연출력과 구성력이 돋보였다.

【구성 및 내용】

귀농 16년 만에 채소 농사와 함께 채소를 말려 알록달록 신선식품으로 만드는 사업에 성공한 주인공의 곁에는 35년 고부사이 시어머니가 있다. 시어머니와 함께 새벽부터 밭에 나와 각종 산나물을 가꾸는 모습과 처음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까지 언급 되었다. 주인공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엄마로서 주부로서 아이들에게 채소 하나라도 신선하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업 소개로 이루어졌다. 귀농을 하게 된 계기와 처음 귀농을 하면서 겪은 어려웠던 일, 그리고 그 무렵에 시어머니가 합류하여 여러 모로 힘이 된 사연까지를 차례로 다루었다. 남편의 퇴임을 앞두고 전 재산을 들여 산 5천 평의 농원, 겁 없이 귀농한 가족은 채소를 심기 시작했고, 채소를 먹기 간편하게 만든 채소잡곡을 개발했으나 판로가 없어 빚더미만 안았다. 그러다 우연히 홈쇼핑에 소개되면서 연매출 40억, 사업에 성공했다.

주인공은 자신의 공장에서 인근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줄 때면 “농업에 이런 맛이 있구나, 이것이 행복”이라며 농사를 짓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녀의 곁에는 항상 시어머니가 있었다. 고부가 함께 가꾸는 5천 평 농원에도, 식품공장에도 모든 일을 함께 하는 두 사람은 35년 단짝답다.

12개 농가와 계약 재배를 하게 된 과정과 실제 한 농가를 방문해서 정황을 살피는 장면을 담았고 그러면서 느끼는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강조했다. 감자밭 농장주의 얘기를 통해 계약 재배라는 것이 농사짓는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강조되었다. 사업가로 변신해서 겪었던 여러 번의 실패와 극복 이야기를 다루었고 자사 제품으로 간편하게 요리를 시연하는 장면까지 담았다.

귀농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냥 농사짓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간편 상품으로 개발한 요즘 성공한 농사꾼의 전형을 보여줘 흥미롭고 유익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다른 농가를 도울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시어머니와 농사를 지으며 다정하게 지낼 계획을 세우는 인간적인 면모가 돋보였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1. 6. 27.	시청률	0.000

【총 평】

‘이달의 뉴딜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편은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디지털 뉴딜의 실제 활용사례를 제시해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뉴딜의 활성화와 필요성을 알린 기획이 탁월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시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제시해 접근성을 제고했다. 저시력자를 위한 플로워 AI 앱 개발과 활용 사례는 인공지능 기술이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여 ‘디지털 혁신이 곧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져 포용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을 일깨워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특히 장애인 개발자가 자신이 직접 만든 플로워 기능을 설명하면서 장애인 어머니의 애절한 심정을 헤아려 만들었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구성 및 내용】

‘디지털 뉴딜을 통한 포용사회’는 디지털 혁신이 이뤄지고 있고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약자에 대한 지원 노력을 살펴보았다. 노인 취약계층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혁신사례를 통해 진정한 ‘포용사회’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한 취재물이었다. 거시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결론을 도출해낸 구성이 좋았다.

빠른 속도의 디지털 혁신, 뉴딜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 약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런 사례를 살펴본다. 시흥시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밴드를 보급하였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활동량, 혈압 등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심장 협심증으로 여러 번 수술을 받은 ○○○씨와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씨는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보건소에서 지급받은 혈압계, 혈당계로 수치를 체크하고 스마트밴드로 관리하고 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사업으로 6개월마다 간호사가 어르신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도 이뤄진다. 코로나 확산 및 장기화로 노인 대상 비대면 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AI 스피커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심리까지도 관리해주고 있다.

AI 기술이 도입된 플로워는 저시력인을 위한 확대 음성지원 솔루션으로 저시력자가 직접 개발했다. 종종 저시력자로 버스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 플로워를 개발했는데, 해당 앱을 통해 신호등의 변경, 버스번호의 확인 등이 가능하다. 플로워가 지금의 기술력을 갖추기까지는 AI바우처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다. 악조건 속 버스 번호 인식을 위해 AI 데이터를 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오는 9월 정식 런칭을 앞두고 있는 플로워는 시각 장애인들에게 문밖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눈이 되어줄 목표를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6. 27.	시청률	0.035

【총 평】

‘친북’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7일 북한 3차 당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대외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정세변화와 미북관계 전망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이슈텔링’은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의 역할과 기대감을 짚어보며,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현재 정부가 다양한 경로로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과 연계해볼 때 의미 있었다. 남북대화가 막히고 바이든 정부이후 미국과 북한의 탐색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미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전략과 역할이 필요한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살펴보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항상 문을 열고 긍정적 요소를 찾아야 하며, 작은 소통의 불씨도 살려야 한다는 점이 해결책으로 제시돼 설득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친북’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7일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외메시지에 담긴 뜻을 다각도로 분석했는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 가능성을 유추해봤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이와 연관해서 백악관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성 김 특별대표의 반응을 소개하고 북미간의 대화 전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대화 가능성도 점쳐봤는데 유의미한 내용이 많았다.

북한은 올해 1월 당대회에서는 강대강, 이번 제3차 당 전원회의에서는 선대선이라는 의미를 전했다. 즉 미국을 상대로 우의에 서 있고자 하는 모양새로 읽힌다. 특히 대화 의지가 주목된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던 시기에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흥미로운 신호로 여긴다며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설리번 보좌관의 대응 이후 김여정 부부장은 다시 꿈보다 해몽이라며 부정적 메시지를 전했다. 하지만 그간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미국에 대해 거침없는 비난을 전한 것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것이 없었다. 이는 대화를 위한 정교한 탐색전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리선권 외무상 역시 무의미한 접촉과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조건이 관철다면 만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핵문제를 총괄하는 성 김 미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9일 한국을 방문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미국 역시도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고 밝혔다.

성 김대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한미국대사로 있었다.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인의 마음을 얻을 대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오바마 행정부는 성 김을 주한미국대사로 임명했다. 주한미국대사로 있을 시 개방적으로 활동했으며 블로그 등으로 소통을 중시했다. 외교계에서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인도네시아 미국대사로 있었음에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1. 6. 27.	시청률	0.001

【총 평】

‘아물지 않는 아픔 - 홍성 민간인희생사건’편은 6.25한국전쟁 당시 좌익과 우익의 보복학살로 주민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 ‘화해’ 메시지를 부각시킨 기획이 돋보였다.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홍성에 진입하면 군민이 학살되고 국군이 홍성을 탈환하면 다시 부역 혐의로 보복학살 당하는 역사적 비극의 실체가 낱알이 드러났다. 역사문화의 고장 충남 홍성지역에서 왜 이런 끔찍한 비극적 학살의 참상이 빚어졌는지 그 배경과 원인을 밝혀낸 점이 전후세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역사의식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는 좌익 우익 희생자를 모두 추모하자”는 유족회장의 메시지가 ‘화해’를 향한 큰 울림을 줌으로써 완성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일제 강점기에는 강제노역과 수탈의 희생자로 해방이 되어서는 이념 갈등에 의해 동족의 손에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홍성 주민들의 아픈 기억을 역사의 질곡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가슴에 와 닿았다. 한국전쟁 중 인민군 점령이 끝나고 수복이 된 이후 홍성 지역에서 일어난 민간인들의 희생사건을 짚어보았다.

희생자 유족의 생생한 증언으로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렸고, 우리가 왜 이 사건을 기억해야만 하는지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꼼꼼이 생각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70여년 전 당시 홍성지역 보도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예비검속이 이뤄졌고 광천읍 내죽리에서 김동규씨의 아버지는 구금되었다가 희생되었다. 구항면 마온리에서는 최흥이씨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홍성경찰서 무도장에 구금되었고 희생되었다. 홍성군 홍성읍에서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씨의 아버지는 자수를 위해 홍동지서를 찾았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인터뷰에 나온 피해자 유족들이 비교적 담담하게 학살 당시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겪었을 아픈 기억과 상처가 더 강하게 전해지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92세 미망인의 당시 증언과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도 아들을 훌륭하게 성장시켜 장한 어버이상을 수상한 스토리가 감동을 줬다. 학살당한 부친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아들의 한이 인터뷰를 통해 절절이 표현됐다.

일제강점기 당시 석영굴이 있었던 광천읍 담산리에서는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발굴이 진행되었고 유전자 검사 등이 이뤄졌다. 진실화해위는 2009년 홍성지역 보도연맹원 희생사건, 2010년 부역혐의 희생 사건을 진실규명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국가의 공식적 사과와 위령사업 등의 지원, 보완조사를 통한 화해 등을 권고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1. 6. 27.	시청률	0.003

【총 평】

교통체증 유발 '드라이브 스루' 대기차로 조성편은 제천시 의림대로변의 한 카페에서 운영 중인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이 손님이 많아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근 도로가 교통 혼잡에 빠지자 시와 해당 업소, 인근 상인들이 협심해 대기차선으로 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우리 동네 골칫덩이 '빈집' 재생사업으로 해결편은 천안시 외곽에 위치한 빈집들의 부작용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한 재생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집주인의 만족도를 강조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시의 관심, 인근 주민들의 상생 노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었다.

【구성 및 내용】

교통체증 유발 '드라이브 스루' 대기차로 조성편은 코로나19로 인해 비슷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서 더욱 눈길을 끄는 사례였다. 최근 6년간 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을 정리하고 그 유형을 살펴본 대목도 좋았고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더욱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 선정이었다. 민원의 내용 이해를 위해 현장 영상을 통해 어느 시간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도 충분히 검증을 잘했다.

지난해 말부터 발생한 민원으로 그리 오래된 민원도 아닌데 제천시가 발빠르게 나서서 해결해냈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상당히 부각되었다. 민원이 점차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대기차로 조성에 합의하여 사안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결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인도를 얼마나 줄이고 이에 대한 보행권 침해가 없는지, 사업비는 누가 부담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내역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인상적이었다.

우리 동네 골칫덩이 '빈집' 재생사업으로 해결편은 천안시 빈집 재생사업에 관한 것이었는데 비단 천안시뿐만 아니라 대도시를 제외하고 어지간한 외곽 지역에는 빈집 혹은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남아 있기 마련이라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먼저 빈집이 방치됨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우려점을 충분히 언급하여 이번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 과정에서 집주인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도 상세히 짚어주어 역시나 공감을 샀다.

천안시가 집주인과 합의하여 마련한 빈집 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소개가 잘 되었다. 철거비는 천안시가 부담하고 3년간의 공공용지로 활용한 후에 원래 집주인에게 그 용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된다고 설명해 주었는데, 현명한 결정이라는 생각과 천안시의 아이디어도 무척 돋보였다.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로 제공되면서 주민들이 그 곳에 텃밭을 가꾸면서 채소도 나누어 먹고 우애도 좋아졌으며 불안감도 덜었다는 주민 인터뷰가 훈훈한 결말을 선보였다.

프로그램	정책은 머니? 혜택은 뭐니?		
방송일자	2021. 6. 27.	시청률	0.054

【총 평】

‘한부모 지원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임신과 출산 지원 제도부터 양육, 생계 지원 혜택을 다루었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개선과 인식에 대한 통계 자료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특히 한부모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차별에 대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지원 정책’에서는 학교안전사고 공제 제도와 학교폭력예방 지원체제에 대해 소개했고 각 지자체별로 마련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까지 함께 소개가 됐다.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사고 발생원인, 사고부위 등에 대해 각각의 분류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시했고 학교안전공제를 통해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 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한부모 지원제도’는 153만여 가구의 한 부모 가족에 대한 불편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선된 정책을 설명하였다.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2만1천명의 미혼모 가정과 7천8백 명의 미혼부 가정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불편 문제는 무엇이고,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한 정책과 출산 및 양육까지 지원하는 통합강화서비스는 무엇인지,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변화 필요성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하여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관한 정책 및 혜택사항은 한부모 가족이 차별적 대우나 부정적 선입견의 고정관념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각 가족 구성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해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지원 정책’은 학교 안전사고 유형 및 학교 폭력 유형에 대해 많은 정보제공과 더불어 각각 안전사고공제를 활용한 지원 정책 및 다양한 학교 폭력 예방 주요기관들을 소개하여 학교폭력예방의 문제 해결을 도와주게 하는 기대를 주었다. 학교안전사고 공제제도가 무엇이고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보상 신청 방법과 보상 신청 절차를 자세히 다뤘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는 놀이와 장난 등으로 대부분 일어났고 안전사고로 다치는 부위중 가장 많은 부위는 눈을 비롯해 이마, 치아 등의 얼굴부분 많았음을 전하여 안전사고 예방의 경각심을 높였다. 학교폭력유형에는 언어폭력을 비롯해 신체적 폭력의 일종인 꼬집기, 때리기, 유인, 감금, 상해 등의 종류를 설명하였다. 우리가 폭력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도 상대방이 폭력으로 느껴졌으면 폭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력의 범위가 넓고 무심코 저질러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1. 6. 27.	시청률	0.000

【총 평】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하나의 사회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진화 중인 물류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물류의 혁신, K-스마트 물류를 구축한다.”편을 방송했다. ‘K-스마트 물류’는 물류 시스템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자동화 설비와 생산성 향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와 소비자들에게 신속 정확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는 온라인 물류 산업을 확대시킴과 동시에 스마트 물류 구축을 앞당기고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적 물류 산업단지의 재편성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의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물류센터의 대형화로 스마트 물류센터는 필수적인 인프라로 인식되고 낙후된 물류센터의 첨단화 및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 등의 제도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성 및 내용】

스마트 물류의 정의와 스마트 물류 구축의 중요성을 통해 스마트 물류가 무엇인가를 과거 이슈별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스마트 물류 구축이 왜 중요한가를 현 상황에 맞추어 잘 설명했다. 택배 노조의 파업과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안전사고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를 소개해 집중해서 시청할 수 있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들도 인상적이었고,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물류의 정의에 대해 살피고 스마트 물류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마트 물류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현장 반응을 살피고 스마트 물류 구축이 중요한 이유를 강조했다.

경기도 이천의 풀필먼트 센터의 무인운송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소개하고 실제로 분류 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공개하고 그 장점을 강조했다. 무인 운송 로봇을 활용해 로봇이 알아서 선반을 옮기는 모습에서 스마트 물류의 미래가 그려지는 느낌이었다. 또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부각되었다.

스마트 물류센터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피고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했으며 이로 인한 개인과 기업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 밖에 혁신 항만 시스템을 도입한 부산항의 작업 및 관리 현황을 소개하고 세계 1위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았다. 부산항 스마트화 구축은 5G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스마트 물류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현재 물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현재 물류 체계의 문제점으로 정보 공유의 정체, 기업의 인식 개선, 관할 부서 통합 등을 지적했다. 스마트 물류의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한 번 더 강조한데 의의가 있었다.